



제주 4.3 성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자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2023. 3.20.(월)~4.3.(월) [15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지난 1993년 3월 20일 제4대 제주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된 4·3특별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제주4·3을 공식적으로 다룬 첫 번째 공공기관이자 공식기구로 기록된 4·3특별위원회는 30년을 이어온 유일무이한 ‘특별위원회’이기도 하다. 출범 30주년을 계기로 4·3의 온전한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를 준비해본다. /관련기사 8면

“과정에 충실하면 목표에 도달할 것”

8일 제413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심사 및 업무 보고 다음 임시회 4월 10일 열려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인 제4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4일 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23건과 도지사 제출 의안 39건, 교육감 제출 의안 9건을 포함한 총 71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사회 관심을 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민 공감대 부족 △건축 제한의 타당성 검토 필요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 수립 미흡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의 과도한 규제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부결 처리됐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도 부결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과정을 일부 비공개로 추진하는 등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높은 항공료와 좌석을 구하기 힘든 제주 항공권 문제를 꺼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세계농아인대회 준비 미흡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정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전국 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임시회 기간 주요 현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 방문도 이뤄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해양수산연구원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환경도시위원회는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 시설 공사 현장을 둘러봤고 교육위원회는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부지 현장 방문에 나섰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봄이 시작됐다. 모든 시작에는 기대와 설렘,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하다 보면 연초의 목표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며 “오늘보다 더 좋아질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414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면 안내

종합	▶1
제413회 임시회 폐회	▶2
주요 이슈	▶3~4
제413회 임시회 상임위 이슈	▶5~7
4·3특별위 출범 30주년	▶8
생생 의정활동	▶9
의정활동 체험기	▶10
함께합시다	▶11
사무처소식	▶12



“제2공항,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김경학 의장 제413회 폐회사 보조금심의 기준 문제제기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제413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제주도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제주도정의 역량을 기대하며 도와 의회, 국회, 도민사회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제주시 동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개 읍면동은 이미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

고 제주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저출산 극복에 적극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관광예산에서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자체간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제주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국가 공모사업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제주도정은 국가 공모사업 대상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절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권 가격 급등과 좌석난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님께서 지난 도

정 업무보고에서 제주기점 항공사의 좌석 축소와 과도한 요금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지사님의 강력한 어조와 달리 담당부서에서는 별다른 대응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학 의장은 특히 보조금심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에서 항의 방문이 있었다”며 “12년간 계속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사업비가 올해 서귀포시에는 편성되었지만, 제주시는 미편성 되는데 대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납득하기 어렵다. 가파른 물류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장애인 고용안정과 고용확대 등 자립을 위해서라도 지원금 중단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 밖에도 폐회사를 통해 수소트램 계획 추진에 대한 우



려를 나타냈고, 오는 7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에 대한 제주도정의 준비 미흡 등을 거론했다.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

제주 4·3 서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

서른 해의 봄, 4·3특별위원회의 기억
(4·3특별위원회 활동 전시회)
2023. 3. 20_ 4. 3, 15일간
도의회 로비 및 연결동로(2~3층)

“4·3 미래를 말하다”
(2030 집담회-제3회 4·3 情談會)
2023. 3. 27.(월) 14:00
도의회 도민카페

“4·3 함께 말하다”
(4·3영화 상영회)
2023. 3. 29.(수) 19:00
롯데시네마 아라점 4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완전한 무상보육 실현 논의

사회보장 특별위, 21일
정책 토론회의 장 마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현재 무상보육제도아래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보육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상보육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아동 보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부담하며 보육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과 같은 필요경비로 인해 ‘완전한’ 무상보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무상보육’ 제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완전무상보육’ 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논의를 끌어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현지홍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부모와 학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해 무상교육에 대한 궁극적 목표인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지홍 위원장은 “무상보육 쟁점을 정리하고 아동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공동현안 해결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제주서 개최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관심 당부
지역소멸대응특위 규정 제안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가 제주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지난 13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시도의회 공동현안 사항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의 안전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거친 후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농어촌·도시 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이 상정됐다. 김경학 의장은 “지방 의회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하고 지방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조례,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향한 우리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제주4·3이 75주년을 맞은 올해, 제주도민들이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하여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된 4·3의 정신이 확산돼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 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김시숙 지사에 항일독립운동가 서훈을”

제주도의회 여성의원
3·8세계여성의날 맞아
서훈 촉구 입장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들이 115주년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김시숙 지사의 항일독립운동가 서훈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고의숙(교육의원, 제주시중부)·김경미(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경심(더불어민주당, 오라동)·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의원은 지난 8일 1층 도민카페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1908년 3월 8일은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참정권 등의 여성 권리 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날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기념하는 이유는 세상의 절반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오래된 역사가 있어왔기 때문이며, 그 관행은 지금도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시숙 선생은 여성의 문맹 퇴치 강습소인 여수원을 개원하는데 앞장섰고, 조천에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며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어린 한국 여성근로자의 핍박에 항거하기 위해 제일여공보호회를 조직하고 신진회의 여성부장으로도 항일운동에 적극 나섰

다”고 밝혔다.

또한 “항일독립운동가로서의 길을 당당히 걸었던 김시숙 선생이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우리는 항일의 길을 걸었던 민초의 삶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과 여성 운동에 앞장서다 1933년 일본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제주 여성 김시숙 지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로 추서될 수 있도록 여성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지난해 실시한 74건 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재정 수반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2년에 실시한 비용추계는 총 74건으로, 그 중 비용추계서가 13건, 미첨부사유서는 56건(1호 48건, 2호 8건), 미대상사유서는 5건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건, 농수축경제위원회 15건, 교육위원회 7건으로 나타났다.

김애숙 사무처장은 “비용추계제도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교류 활성화 기대

9~11일, 3일간 제주 머물러
들불축제 개최 현장 방문등
몽골서 제주 농산물 홍보 약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의장 체렌 도르이 잠발수렌)간 활발한 의정 교류가 기대된다.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대표단(의장 체렌 도르이 잠발수렌)이 지난 9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가운데, 10일 의장실에서 김경학 의장과 체렌 도르이 잠발수렌 의장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날 체렌 도르이 잠발수렌 의장은 “올해는 투브아이막이 생긴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앞으로 양 지역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의 농산물이 몽골에서 유명해지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의 청정 농산

물을 몽골에 알리겠다는 말씀에 감사하다”고 잠발수렌 의장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 제주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 간 의정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특히 다양한 관심 분야에서의 도시 발전을 위한 파트너 관계 유지와 민간 분야의 교류까지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대표단은 이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제25회 제주들불축제 개막식 행사에 참가해 제주의 축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몽골 투브아이막의회는 지난 2017년에 의정 교류 협약을 체결,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경학 의장이 몽골 투브아이막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 중단 부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7일 김경학 의장과 면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임원들 간 면담이 지난 7일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이민숙 회장과 양창호 부회장을 비롯한 제주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8명이 참석,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했다.

아가곶드래 대표인 이민숙 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며 “지원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 물류비 지원까지 없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장애인 복지 부분이 흔들

릴 위기”라고 밝혔다.

양은심 길직업재활센터 대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힘이 막강하다”며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 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 양창호 부회장은 “물류비가 삭감되면서 생산량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분명히 필요

한 건 물류비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립이다. 자립을 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 등 최대한의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활용 증점 둔 정책 필요”

미래환경 특별위, 6일 간담회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환경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6일 지하 회의실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커피박 재활용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커피박 재활용 정보 공유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참석 관계자들은 “커피박을 소각이 아닌 재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활용 기술 지원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회와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

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문 위원장은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이 생활폐기물로 배출, 소각됨에 따라 탄소 배출원이 되기도 한다”며 “커피박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각보다는 재활용에 증점을 두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4~11월 운영

27일까지 온라인·공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운영한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제주 미래세대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u.kr) 또는 꿈길(www.ggoomgil.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도의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일반) 단체 등으로, 20~45명 구성의 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김경학 의장은 “의정체험을 통해 제주미래를 이끌 인재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따뜻한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인증현판을 제공 받은 바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2022년 12월 14일~2025년 12월 13일)이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투명성 확보 시급

행정자치위원회, 도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도입 보고회 비공개 지적...도민 신뢰 제고 주문

행정자치위원회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 3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받았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지난달 제주도가 개최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비공개로 진행하면서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행정체제개편 용역 착수보고

회 개최 하루 전날에야 의회에 알렸다”며 “해당 용역이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수보고회로부터 비공개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시점인 2월 27일 용역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논란이 있을까 봐 2월 27일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견입동)은 “2월 2일 착수보고 이후 27일 추진계획을 발표한 날까지 25일이 소요되는 등 협의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다 최종 확정된 과업수행계획서의 공개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로드맵 발표까지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은 게 문제다. 자꾸 밀실

행정 논란이 나오는 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연구용역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의 신뢰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 역시 “행정체제 개편 진행 과정에서 도민 사회의 신뢰

를 잃으면 안된다”며 “어떤 절차라도 비공개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이번 용역 과정에서 제주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제주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들을 전부 알 수 있는 조직인 만큼 이런 중요한 사안에 제주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 대응 미흡...한목소리 질타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 기관 선정 “도민 사회 납득해야” 세계농아인대회 7월 개최 불구 행사 준비 소홀·홍보 부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달 28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으로 상대로 올해 주요 업무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 운영기관 선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위수탁 심사위원회를 통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새로운 수탁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선정한 것에 대해 공모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공모 사업 기준은 ‘주사무소가 제주도에 있는 법인’이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분사무소가 제주에 있는 법인’까지로 확

대됐다”며 “이것이 기존 운영단체인 제주장애인총연합회는 안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실적 점수의 배점도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역 사회복지법인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장애인단체들은 제주장애인총연합회를 배제하기 위해 항목을 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선정에서 탈락한 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만큼 도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가 오는 7월 개최되는 ‘세계농아인대회’를 앞두고 행사 준비나 홍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 장애인정책 홍보 등 제주 위상 강화,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의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며 “4월에 개최되는 세계장애인대회의 경우 부산시가 단순 후원이 아닌 주관처가 되어 행정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행사를 지원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도정의 의

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도 “유치만 해놓고 후속 지원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며 “세계인이 제주를 방문하는 국제행사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결...도민 공감 부족

7일 도의회 상임위 심의서 의견 수렴 부족 등 제기 제주시 용담공원 조성 예정지 현장 방문 등 활동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7일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부결 사유에 대해 환경도시위원회는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등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동일 용도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와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마련 미흡과 허용 여부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중산간 지역에 타 조례에 의한 행위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의 타당성 여부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부결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 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민 불편 사항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32명 가

운데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재석 의원 과반(16명 초과)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악취·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

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만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경우 형평성 및 이종 지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유사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감면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시 용담공원 조성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품귀·높은 가격...“제주 항공권 대책 마련해야”

특별법 활용한 세액공제 등 개선안 주문 크루즈 관광객 지역 상권 유도 방안 필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지난 2일 열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제2차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 항공권 품귀 현상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항공권 가격 문제가 거론됐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제주도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에 이어 높은 항공료까지 신4고(高)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에게 항공은 대중교통과 같다”며 “항공권 문제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도 “항공사에 요구해도 제주도에 권한이 없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점을 활용해

항공료에 한해 대중교통에 준하는 세액공제, 유류 할증료 할인 등이 이뤄지도록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주항공이 제주라는 브랜드를 달고 출범했지만 제주를 위해 기여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제주 노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관광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이 3년만에 재개됐다”며 “이달부터 제주에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크루즈 관광객을 지역상권으로 유도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 역시 “16일 일본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이 제주항으로, 19일에는 강정항으로 들어오는데 9시간 정도 머물게 된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소비하고 관광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제413회 임시회 업무보고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해 블랙박스형 공연장 ‘비인’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현장을 방문,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16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제주 첫 블랙박스형 공연장 ‘비인’은 객석과 무대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데다 연출 의도에 따라 융복합공연이 가능한 공간이다. 올 상반기 내로 운영근거를 마련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아 위원장은 “조속히 운영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공연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도정 대책 미흡”

올해 확보 예산 부족...중장기 계획 마련 요구
신재생에너지 추진 관련 방향성 확립 주문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달 28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강연호 위원장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관련 문제는 해양 환경 리스크와 관련해 몇 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소외됐다”며 “관련 용역 결과를 통한 피해액 산출과 대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

추자면)은 제주연구원이 내놓은 연구 용역 결과를 놓고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제주 수산물 소비 감소액은 연간 4400억원 가량이다. 제주 전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것 같은데 이정도 피해로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올해 기금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대응에 118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조사가 다양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 조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도 최근 애월읍에서 민간 주도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추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제주도정의 신재생에

너지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장방문도 지난 3일 이뤄졌다. 첫 일정으로는 국가 위성 영상을 관제·수신·관리하는 국가 주요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둘러봤다.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람실 및 안테나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수산연구원 방문이 이어 이뤄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주연안 해양환경 관측자료 공유 플랫폼 및 통합정보시스템 가동현황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의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제주도 우주산업 선도지역으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길 바라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청정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 추진 공모 사업 미참여, 납득안돼”

도교육청 ‘늘봄학교’ 공모 미참여 학교와 협의 부족 지적
업무보고 자료 미흡...주요 현안 관련 소통 부족 질타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서부)는 지난 7일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도교육청이 지난 1월 교육부가 진행한 ‘늘봄학교’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키로 하고 지난 1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도교육청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타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모에 적극 참여한 것과 대조된다”고 밝히는 한편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도 “늘봄학교는 교육부의 10대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일선 학교와의 소통이 부족해 응모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칭 서부중학교, 예술 및 체육고 추진 등 주요 사업과 관련,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서부중과 예술 및 체육고 설립, 제주고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문제, 유아교육체험관 건립 등 도민사회에 이슈가 되는 핵심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

표)은 도내 청소년의 불법도박과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교육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전국에 94개의 대안학교 있는데 반해 제주에는 1개 학교도 없이 대안교육위탁과정 운영으로만 진행, 대안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에 앞선 지난 6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건 심사

에 앞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위치한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학교 설립 예정 부지 현장에서 학교 설립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한편 학생 통학로와 학생 배치, 시설 배치 등 향후 추진상 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3월20일 의사당 1층 로비에서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장정언 제주도의회 의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과 한 권 위원장을 비롯한 4·3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기억의 기록을 통해 4·3의 미래 준비”

4·3특위 30주년 “제주 4·3 서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

제주도의회 43특위 ‘출범 30주년’ 개막식

1993년 3월의 봄, 4·3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듬해 ‘4·3피해 신고실’을 만들어 피해 신고 접수에 나섰다. 각종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제주도4·3피해조사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후에도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 특별법 제정 성과를 얻는 등 4·3해결의 초석을 다지도록 했다. 그리고 4·3특별위원회가 서른 해의 봄을 맞았다. 지난 20일부터 4월 3일까지를 30주년 기념주간으로 운영 중이다. 4·3 기억의 기록을 통해 4·3의 미래를 준비하는 4·3특별위원회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 1·이도1·건입동)는 지난 20일 도민카페에서 ‘제주4·3 서른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를 주제로 한 기념 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장정언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 위원장은 “지난 30년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소명을 다 해낸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필요한 책임을 완수하여 ‘열매를 맺는’ 앞으로의 30년 디딤돌을 놓아가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이 끝난 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영령에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보고하고 참배했다.

한편 22일 대회의실에서는 4·3특별위원회 4대부터 12대까지 역대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른 해의 봄, 4·3특별위원회의 기억’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기념 문화 행사

오는 27일 오후 2시에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4·3 미래를 말하다’ 주제의 2030 집담회 개최가 예정됐다. 집담회는 제주지역 4·3단체 20~30대

활동가들이 참여해 4·3의 미래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들을 풀어내게 된다.

이어 29일 오후 7시에는 롯데시네마 아라점에서 4·3유족을 초청,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를 상영한다. 영화는 김경만 감독의 작품으로 제주 4·3으로 인해 전주형무소를 다녀온 이들의 이야기를 녹여냈다. 재판 없이 형무소로 보내진 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이야기들이기에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을 느끼게 한다. 작품은 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4·3특별위원회 활동 전시회

운영기간 내내 도의회 로비와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잇는 2층 연결통로에서는 ‘서른 해의 봄, 4·3특별위원회의 기억’을 주제로 4·3특별위원회의 활동 모습들이 걸린다. 지난 1994년 4·3피해신고실 모습과 탐동에서 봉행된 첫 4·3합동위령제 모습, 1999년 제주4·3해결 추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 활동, 2007년 ‘4·3 70주년 2018년 제주방문의 해’ 선포식 등이 담겼다.

그리고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잇는 3층 연결통로에서는 제주대 4·3학생모임 ‘화동’의 기획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4·3을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 제목을 달고 ‘제주4·3’관련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4·3이 왜곡되지 않고 미래세대에 어떻게 전승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전시는 오는 4월 3일까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History

4·3특별위원회가 걸어온 길

- 1993. 3. 제4대 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
- 11. 국회 4·3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청원서 제출
- 1994. 2. 4·3 피해신고실 개설 및 피해신고 접수시작
- 1995. 5. 제주도4·3피해조사 1차 보고서 발간
- 5. ‘국회청원 조속해결 촉구 건의문’ 및 1차 보고서 국회 전달
- 11. 제5대 의회 4·3특위 구성
- 1996. 3. 4·3알리기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순례
- 11. 국회 4·3특위구성에 관한 청원서 전달
- 1997. 2.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수정·보완판) 발간
- 1998. 9. 제6대 의회 제1기 4·3특위구성
- 1999. 9. 제2기 4·3특위 구성
- 12. 4·3특별법 제정촉구 국회방문
- 2000. 3.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2차 수정·보완판) 발간
- 11. 제3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2001. 12. 제4기 4·3특위 구성
- 2002. 7. 제1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2003. 7. 제2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12. 4·3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 건의
- 2004. 7. 6.25전쟁사의 4·3사건 왜곡에 따른 건의문 채택
- 7. 제3기 4·3특별위원회
- 2005. 7. 제4기 4·3특위 구성
- 2009. 4. 4·3 특별위원회 구성
- 8. 새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따른 관련 기관 방문
- 2016. 12. 제4·3특별위원회 구성
- 2017. 4. 4·3관련 배·보상 촉구 결의안 전달
- 2018. 9. 제11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2019. 4. 4·3특별법 전부개정 및 여순특별법 제정 공동성명
- 2020. 9.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11.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켓 릴레이 시위
- 2021. 2.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2022. 7. 제12대 4·3특별위원회 구성
- 11.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추가신고 안내 일본 방문



의정자문위 상반기 전체회의 열려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 활동상화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상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7개 분과위원회별 위원과 도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하반기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은 “55명의 위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얻

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분과별로 다양한 현안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며 “제주의 발전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가 소통의 다리 역할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3일, 전·현직 공무원과 교수, 전문직, 사회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총 55명을 위촉해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ESG 관련 시설 지원 등 지원 확대 마련”

양영식 의원, 정책 간담회 열어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지난 15일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ESG 경영 적용시 제약 요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ESG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이나, 이에 필요한 경영환경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89.4%로 매우 높다”며 “대기업(80.6%)과 해외거래처(28.2%)를 중

심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부담된다(61.1%), 거래처의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36.1%)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기업 ESG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ESG 관련 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영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제약 요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수 방류, 피해 지원 대책 절실”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20일
도의회·도와 토론회 공동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개최로 지난 2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완로 단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종명 원자력환경실장,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도해녀협회 고송자 사무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원

자력환경실장의 ‘제주 근대 해양방사능 조사’, 양혜영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사의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주수산물 안전관리’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아 ‘도민의 안전보호와 소비위축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펼쳐졌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향후 30년 이상 방류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수산식량 안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생업을 포기하려는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애 위험군 영유아, 조기 개입 체계 필요”

14일 제도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최진의 회장의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지원 통합 시스템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미 위원장의 좌장으로 전연경 낮은울타리 어린이집 원장, 김현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교육지원팀장, 이은경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

장윤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최진희 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장애 위험군 영유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통합된 조기개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조기 발견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등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턴 체험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흥미 생겨”



김다빈
제주대 행정학과 4학년

한 과제를 읽어보곤 보완할 점을 말씀해주는 시간인데, 특히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왜 생각했냐? 라며 의견

개인적으로 4주간 도의회에 출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매주 하는 과제에 대한 피드백의 시간이다. 특히 이때 오 팀장님께서 우리가 제출

을 물어봐주시는게 좋았다. 무작정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신다.

그에 맞춰서 보완할 점을 피드백 해주셔서 내가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다음번에 이렇게 해보아겠다는 도전적인 생각이 들었다. 조금 인턴 기간이 길었다면 스스로가 발전하는 일도 많았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인턴 기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조금은 아쉽다.

또 인턴을 하면서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팀장님의 과제 피드백과 그 주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 특히 1주차에 했던 자치법규의 개념, 자치법규 입안 절차 등 전반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때부터 자치법규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관심이 생긴 시점에서 정책입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나중에 내가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이번 인턴 한 달을 하면서 의회가 회기 기간이 아니기에 회의를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쉽다. 하지만 다음에 인턴을 하게 된다면 회기 기간에 인턴을 신청해서 경험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달만 하는 인턴이지만 잘 챙겨주신 정책입법담당관실의 모든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열린 의회의 모습 만나 볼 수 있어”



김소은
제주대 행정학과 3학년

하지만, 인턴생활을 지내보니 저의 과거 인식은 상당히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뿐

이번 도의회 인턴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인턴 체험 전에는 도의회는 단순히 도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라고만 인식하였습니다.

만 아니라 제정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거나, 의원님들에게 현재 여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제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포럼과 정책 세미나 진행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열린 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정책포럼과 정책 세미나의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제주도에 시행하

고 있는 많은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관심 있게 보지 못했던 제주의 정책과 현행 문제들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제 주변에서 어떤 정책이 실시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데에 끝내지 않고, 어떠한 문제점을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지에 대해 쟁점화를 시도해보는 과정을 통해 저 스스로 제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를 한 것 같아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저에게, 도의회 인턴 생활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공직에 임할 경우 제주를 위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행정을 배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진행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것만으로도 차후 공직을 꿈꾸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갈 제주가 기대되는 시간”



고영훈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2학년

을 이곳에서 처리한다 생각하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견학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때 난관에

청년인턴 합격 소식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첫 주에 의회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봉착하였습니다. 의회 존재조차 몰랐던 제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어찌 알았겠으며 자치법규 또한 무엇인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유튜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사히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둘째 주에는 차세대 정책포럼 주제를 선정해야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주제 가운데 습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떠오른 생각이지만 '과연 대학생들이 습지에 관심을 들

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제안서 작성안을 잘못 이해하여 기존 주제로 대학생 세미나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는 아니었지만, 제가 주최한 세미나가 진짜 열린다는 가정하에 준비했기 때문에 재미있었고 보람찼던 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주가 시작되면서 아쉬웠던 기억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

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의 웅장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 24일에 본회의에 참관하게 됐습니다. 이 장소가 도민들을 위한 의견이 나오고 고민하는 곳이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고 생소하지만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갈 제주가 기대되는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더 좋아진 제주, 살기 좋은 제주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주를 위해 노력하는 제주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직접 본 것, 가장 기억에 남아”



김상혁
제주한라대 컴퓨터정보과 2학년

관심이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일주일간 주제 선정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할지 제주도가 지

도의회 인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생 정책 포럼 주제 선정 보고서 작성이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가 얼마나 제주도에

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조금 부끄러웠다.

도의회 본회의를 본 것도 기억에 남는다. 평소에 TV에서만 봤던 의원님들의 활동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신기했다. 도의회 체험 인턴 활동을 하기 전에는 공무원은 다른 직업보다 비교적 편한 직업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도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도의회 체험 인턴 활동 이후 도의원분들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본 회의

를 직접 보기도 하고 인턴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것을 보기도 하니 내가 정말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의원분들은 조례와 조례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시고 도민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대학생 정책 포럼과 정책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공무원분들은 이러한 활동을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체험 인턴 활동을 통하여 나는 도의회에서 지방 의

원분들이 하는 일과 공무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또 대학생 정책 포럼 주제 선정 보고서를 써보며 내가 얼마나 제주도에 관심이 없었는지도 깨달았다.

앞으로는 제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의회에서 도의원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체험 인턴 활동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던 나에게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기회였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여기서 대의(代議)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논함, 둘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이유는 '대신하여 대표'하는 것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나의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나 스스로 해낼 때 책임감을 갖게 되며, 또 보람 또한 스스로 누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대신 결정하고, 누군가가 대신 해내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여러 현실적 조건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는 없어도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 지방자치의 진짜 주인인 '주민'들의 참



이 정 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과 권리 실현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필자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꼽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적인 설치 근거를 가진 주민참여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올해 제13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지금은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 보다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가 타 시도에 도입·운영되고 있어, 다소 의미가 퇴색되었으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근간.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 진짜 '자치' 실현할 틀 준비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전히 명실상부하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라 생각한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이해 조정, 각종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과 추진까지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타 시도에 도입된 '주민자치회'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를 위해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를 추진하였고,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실제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잘 만들어낸다고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유지하되, 그간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야 하며, 그 주인공은 '주민'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들이 직접 진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준비해야 한다. 필자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를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인공지능(AI) 스마트 경로당 본격 추진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chat) GPT 열풍이 대단하다. 챗 GPT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든 질문에 거침없이 답하고, 농담까지 할 정도로 인공지능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소외와 부양비용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읍면지역 어르신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은 숙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정책 팀장

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경로당과 달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전하고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인공동체의 주 거점인 경로당의 역할을 탈바꿈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72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구축되었고, 디지털 기계 사용이 어려

디지털 격차 해소위한 사업 비대면 건강체험관 구축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높일 것

운 어르신을 위해 전담 매니저가 일 자리 사업으로 배치된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통해 첫째,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로봇 외부 감지 센서로 경로당 안전과 자동 신고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비대면 건강체험관이 구축되

는데, 메타버스(가상현실)를 활용한 도내·외 여행 체험과 치매예방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스마트 생활안전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알림서비스 습득은 물론 경로당과 경로당, 재택 노인과 경로당 간 연결이 가능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가능하다. 앞으로 도에서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경로당별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다.

제주의 환호성 기대하면서

축구의 시즌, 서귀포의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달 26일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8,000여명의 홈 관중은 제주유나이티드FC 선수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제주유나이티드FC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펼칠 때마다 모두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승리를 염원했다.

양팀 선수들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 놀라고 현란한 개인기와 몸싸움을 즐긴 시간이기도 했다.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올해 4강에 올라 설 수도 있겠다는 제주FC에 대한 강



고 나 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주무관

한 믿음도 생겼다.

무엇보다 '제주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관중과 함께 동화된 내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

우리 홈경기 관중 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주FC는 제주의 유일

제주FC, 지역 유일 프로구단 홈경기 관중 적어 아쉬움 응원 문화 더 뜨거워야

한 프로구단이다. 경기도의 경우 4개 종목 18개 구단이 있고, 다른 지역 시도마다 여러 프로구단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프로스포츠의 불모지인 제주에서 제주FC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연고로 등지를 뜬지 17년이 되는 지금 홈경기 관중이 12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제주FC를 향한 응원문화가 좀 더 뜨거워질 필요가 있다.

올해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게임의 홈경기가 개최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주는 하나다 그리고 제주와 제주FC 역시 하나다". 경기가 열리는 그날 만큼은 모두 하나가 돼 2만7000여석에 가득찬 가운데 우렁차게 응원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봄을 만나는 순간’ 함덕서우봉해변에 봄이 내려앉았다. 셋노란 유채길 따라 연인의 따스한 행복이 감싼다. 꽃봉우리 터지는 소리로 소란스러운 봄날, 특 치는 바람에 찬란한 봄을 발견한다. 사진/김성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부회장

“체험 위주 교육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

3월 공감·소통의 날 ‘모두의 안전’ 주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공감·소통의 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감·소통의 날은 ‘모두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 가능한 위험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체험 위주의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지진 발생 시 초기

대처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공감·소통의 날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생활에 꼭 필요했던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다같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소통의 날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학 의장은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동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예결전문위에 이안진 전 도평화사업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에 이안진 전 제주도 평화국제교류과 평화사업팀장이 임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이안진 신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

식을 진행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제주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를 취득했으며 제주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경리팀장과 제주도 세정담당관 신세원팀장, 평화국제교류과 평화사업팀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 공헌’ 제주유나이티드에 감사패 수여



도민 공감대 형성 실천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 공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지난 16일 의장실에서 지역 사회 공헌에 힘쓴 제주유나이티드FC(대표 이사 구창용)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제주유나이티드FC가 그동안 도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실천 노력을 한 공로로 전달됐다.

제주유나이티드FC는 매년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찾아가는 축구교실 및 육성지원금 기부를 통한 유소년 축구 유망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은퇴 고령 해녀를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 지속가능한 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한 ‘No 플라스틱 서포터즈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단순히 구단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제주 유일의 프로 스포츠구단인 만큼 앞으로 제주도의 체육발전과 지역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